



환경부, 「무역·환경 정보시스템」 오픈

환경부는 EU, 미국, 중국, 일본 등 주요 수출대상 국가들의 최신 환경규제, 환경산업 동향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 '무역·환경 정보시스템(www.ten-info.com)' 을 개발해 서비스를 시작했다.

무역·환경정보시스템(TEN, Trade & Environment Information System)은 지난해 6월부터 환경마크협회,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

'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'으로 공동 개발한 것으로 우리나라 주요 수출대상국의 환경규제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, 사용자가 해당업종, 해당지역, 정보유형 등 원하는 조건에 따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있다.

시스템에는 EU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(WEEE), 폐차처리지침(ELV), 신화학물질관리정책(안)(REACH) 등 각국의 주요 환경규제와 환경법률 100여건이 등록되어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최신 정책동향, 시장동향, 산업동향 정보가 매달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.

또 전기, 전자분야, 자동차 분야 등 관련 환경규제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과 재외공관의 환경담당 주재원들이 현지에서 수집한 최신정보들이 제공된다.

환경부는 앞으로 정보수집 대상국가 및 지역을 확대하고, 중소기업이 해외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컨설팅업체의 지원서비스 기능을 추가하는 등 무역환경 정보시스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.

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,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지난 5월 24일 과천정부청사 국제회의실에서 「무역·환경 정보시스템」 설명회를 개최하였다.

